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윤상현 1집 '프레셔스...' 발매

배우 윤상현이 16일 일본에서 정규 1집 앨범 '프레셔스 데이즈'를 발매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1집 앨범에는 '사이고노 아메'와 '치카이' 등 기존 싱글곡 외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윤상현의 사진을 모은 스페셜 포토북이 수록됐다. 윤상현은 19일 오사카, 20~21일 도쿄에서 쇼케이스와 악수회를 진행하고 25일 도쿄, 27일 오사카에서는 미니 라이브 및 팬미팅을 연다.

드라마에서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을 선보인 윤상현은 작년 초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사이고노 아메'로 데뷔 첫날 오리콘 차트 11위에 오르기도 했다.



“통기타는 40년 우리 우정짱이자 그때 그시절 청춘들의 동지였죠”

‘세시봉 친구들’ 조영남·윤형주·송창식·김세환

1960년대 청년 문화의 산실인 무교동 음악감상실 ‘세시봉’(C'est Si Bon·프랑스어로 ‘매우 좋다’는 뜻). 이곳에서 1970년대 포크 음악사를 쓴 조영남(66)과 ‘트윈 플리오’인 윤형주(64)와 송창식(64), 김세환(63) 등이 노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MBC ‘놀러와’에서 세시봉 출신 가수들이 전파를 타자 반향은 신드롬 수준이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세월에 농익은 음악과 이야기에 눈물났다’는 젊은 세대의 글이 퍼져나갔다. 약기 판매점이 밀집한 낙원 상가에서는 통기타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는 세시봉 가수들의 음반 주문량이 늘자 별도 코너를 만들었다.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가수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의외였는데.”

▲내가 토크쇼에 나간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냥 여럿이 나간단니까. 하하.(송창식, 이하 송)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서 오면 함께 저녁을 먹곤 했지만 함께 프로그램에 나간 건 처음이었다. 대본도 없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노래했다.(김세환, 이하 김)

▲솔직히 반향은 예상 못했다. 하지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방송 자체의 희소성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윤형주, 이하 윤)

“세시봉의 음악과 이야기 세대를 아우른 호응을 얻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문화는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요즘 음악이 대형화, 산업화되면서 그 밑바탕에 깔린 인간 관계가 상업적, 이혜타산적이 됐다. 우리 돈에 민감하지 못했고 목적이 그 자체로 좋아하든 사람들이 모여 좋아하는 음악을 했다. 친구와 동지란 관계 속에서 음악에 우정, 유머, 철학을 담았고 그 우정이 40여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 요즘 세대에겐 새로웠던 것 같다. 우리의 음악보다 사람 관계를

발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놀러와’가 젊은 세대 프로그램이니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법하다. 젊은 세대는 ‘부모님이 청춘 시절 저런 음악을 좋아했구나’라며 신선하지 않았겠나.(윤)

▲사실 우린 음악 활동을 계속 했고 포크 음악은 늘 존재했지만 이제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간 외면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함께 늙어간 팬들이 우리 노래에 목말랐던 것 같고 젊은 세대가 보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세대를 아울렀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다.(김)

“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

▲대학가에서 유행주라는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축제 때 초대받곤 했지만 1968년 트윈플리오가 만들어지면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윤)

▲1974~75년 TBC(동양방송)에서 가수왕을 두 번 연속한 후 999만원 하던 압구정동 아파트를 샀으니 꽤 인기가 있었나. 하하.(김)

“통기타 문화는 음악사적으로 암울했던 당시 시대와 어떻게 교감했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아래서 우리의 언어와 메시지로 노래한 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태동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음악은 중요한 자산이다. 공산당도 이념에 맞는 음악을 만들듯이 진정한 민주화가 이뤄지는데 통기타 문화가 기여했다고 본다. 물론 우린 낭만주의적 노래를 불렀지만 김민기의 ‘아침이슬’ 같은 저항주의적 노래도 있었다.(윤)

▲‘왜 불러’ ‘고래사냥’ 등의 노래가 금지곡이 됐을 때 좀 속상했다. 히트곡이 규제를 당해 불편했지만 불편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난 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걱정이었다. 하하.(송)

“노래할 때마다 새롭고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익’ ‘더욱더 사랑해’ 같

은 곡이다.(윤)

▲어떤 분위기에서 노래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다르니 지금도 아끼는 곡이 많다. 난 슬픈 노래보다 즐거운 노래가 더 좋다.(김)

“음악인으로서의 꿈이 있디면.”

▲난 꿈은 다 이뤄 마음이 편하다. 학창 시절 학교 등굣길을 벌리고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했는데 40여년 간 내 본업이 될 줄 몰랐다. 내 친구들은 정년퇴임해 연금을 받는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면 40년에 자부심이 있다.(김)

“세시봉 친구들이란.”

▲윤형주 씨는 나와 40여년 간 노래했으니 보통 인연이겠나. 또 조영남 씨는 내가 맨 처음 팝송을 부를 때부터 같이 노래했으니 개인적으로 의미 깊은 사람이다.(송)

“언제까지 무대에서 노래할 것인가.”

▲식물인간이 아닌 채로 살아있는 한 노래하겠나. 하하.(송)

▲나도 사는 날까지 열심히 노래하고 싶다.(김) /연필뉴스



JYJ 박유천 친동생

‘반짝반짝 빛나는’

박유환



“형 그늘 부담이지만

연기로 뛰어넘고 싶어요”

“형이 엄청난 스타이지만 꼭 부담지는 않아요. 스타가 되기보다는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12일 첫 방송한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을 통해 연기에 첫발을 내딛은 신인 배우 박유환(20)에게는 꼬리표가 하나 달려 있다.

바로 JYJ 박유천의 친동생이라는 수식이다. 5살 터울의 형과 단둘이 형제인 그는 갓 데뷔한 신인이지만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형의 동생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형이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준다. 형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보다는 든든하다”며 “형은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스타지만 연기자로서는 꼭 형을 뛰어넘고 싶다”고 말했다.

박유환은 형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까불기도 하는 평범한 형제다. 형이 드라마 첫회가 방송된 뒤에는 드라마 속 캐릭터대로 ‘삼촌’이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한다”며 형과 꼭 닮은 미소를 보였다.

“어렸을 때 형처럼 같은 방에서 자랐는데 형이 음악을 좋아해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라며 자꾸 들려줬거든요. 형이 꼭 가수의 꿈을 키웠다면 저는 한국 드라마나 시트콤을 빌려보고 연기를 따라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어요.”

한국에서 연기 확원을 다니며 연기자의 꿈을 키웠던 그는 형 박유천에게 연기자로 데뷔하고 싶다고 털어놓지만 “쉽지 않은 길이니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했지만 제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주고 있어요. 형을 응원해주는 팬들이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유해진 선배님처럼 어떤 역든 잘해내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당장은 형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는 게 목표지만, 제가 맡은 역은 적절 해내는 좋은 배우가 꼭 될 겁니다.” /연필뉴스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웨딩전문 1급관광호텔
모든 객실 천연대리석 마감재 사용으로 최고의 품사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1가지 특별함

1.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주, 가족 전용 VIP룸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하니문 톨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토달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액자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헬퍼비와 페백수모비서비스)
10. 타 예식장 식비대비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3,4,5,10,11,12월 / 2만8천원-1,2,6,9월 / 2만6천원-7,8월)
11. 이브닝식 빅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톨서비스
- 하객 400명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1F 아트홀(150석)
5F 벨라지오홀(180석)

객실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30가지)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 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콜센터 옆) www.hotelarthall.co.kr

PREMIUM BUFFET MELYSIA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평일 | 영업시간 | 성인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 미취학어린이 (5세-7세) | 토·일 공휴일 | 영업시간 | 성인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 미취학어린이 (5세-7세) |
|--------|-------------|------------|---------------|----------------|---------|-------------|------------|---------------|----------------|
| LUNCH | 11:30-15:00 | 22,000원 | 12,000원 | 8,000원 | LUNCH | 11:30-15:00 | 27,000원 | 15,000원 | 10,000원 |
| DINNER | 16:00-22:00 | 27,000원 | 15,000원 | 10,000원 | DINNER | 16:00-22:00 | 31,000원 | 18,000원 | 12,000원 |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